

# 우유부단형 내담자의 홀랜드 6각형 모형 일관성 및 계측성 사례연구

김병숙<sup>1\*</sup>, 이준일<sup>2</sup>

<sup>1</sup>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 <sup>2</sup>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 The Case Study of consistency and calculus using Holland's Hexagonal model on the career indecisive clients

Byung-Suk Kim<sup>1\*</sup> and Joon-Il Lee<sup>2</sup>

<sup>1</sup>The Chief Director of KVOCA, <sup>2</sup>Departmen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요 약** 우유부단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7가지로 제시되며, 그 중 하나는 다재다능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유부단형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와 내담자가 진술한 주제의 홀랜드 코드와의 일치성, 그리고 우유부단형 내담자가 갖는 각 코드 간의 계측성을 분석하여 우유부단의 원인중 하나가 다재다능함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유부단형을 호소하는 내담자 6명을 대상으로 홀랜드 6각형 일관성과 계측성에서 나타난 모형에서 다재다능함이 나타내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례분석대상 6명 모두가 3코드의 일관성이 낮고, 주제진술에서도 첫째코드와의 일관성이 낮았다. 또한 판정된 3코드와 주제진술에서도 어긋난 코드를 나타냈다. 6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계측성을 보면, 6개의 코드가 모두 발달되었고, 서로 마주보는 코드의 계측성이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으면 다재다능하여 어느 한편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우유부단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ersatility of indecisive clients which is one of the seven key factors to identify indecisiveness by analyzing Holland's 3-letter code with consistency and calculus. By implementing the method of Occupational Card Sort, all six clients showed low consistency in the three codes as well as between the first code and their thesis statements. They also showed mismatching of three codes evaluated with the thesis statements. From observing calculus from the hexagonal model, all six Holland codes showed balanced development and similarity of calculus between the codes in adjacent.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various interests may cause indecision in one's career decision-making.

**Key Words:** Calculus, Consistency, Indecisive, Holland, hexagonal model

### 1. 서론

홀랜드[1]는 RIASEC의 6개 코드를 개발하고 5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다. 5가지 개념은 RIASEC의 코드가 갖는 서로의 인접성과 거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인접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관성이 높고, 코드가 서로 인접할수록 차별성이 높으며,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도 통합된 목표, 직무, 보상

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정체성이 생긴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유형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일치성이 있으며, 환경모형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모형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일관성 및 일치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계측성이 있다.

개인이 갖는 흥미코드와 환경간의 코드를 설명하는 홀랜드의 5개 개념 중 일관성과 계측성은 다재다능함을 나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Byung-Suk Kim(The Chief Director of KVOCA)

Tel: +82-2-584-4220 email: [bsllkim@hanmail.net](mailto:bsllkim@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0, 2013

Revised (1st January 14, 2014, 2nd January 21,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타내는 지표이다. 즉, 프로파일 패턴은 육각형 내의 근접 거리에 있는 유형 간에 가장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며, 반대쪽에 있는 유형 간에는 가장 낮은 일관성을 나타낸다. 양적 도구에서 얻어지는 ‘측정된 흥미’와는 달리 질적 도구에서는 ‘표현된 흥미’를 파악[2-7]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정도구인 직업카드분류는 홀랜드 6각형 모형에 의해 개인에게 3코드를 판정해 주는 직업심리검사로서 질적 검사이다. 직업카드분류에 대한 연구는 카드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8-14], 대상별 직업카드분류의 개발 연구[15-20] 직업카드 분류의 주제어에 나타난 타 검사와의 일치도 분석[21], 직업카드 개선연구[22] 등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사례분석을 통한 맥락적 접근 방법에 대한 시도는 직업카드분류 결과와 홀랜드 코드 간의 분석[23], 주제분석[24] 등 외에 전무한 상태로 질적 도구로서의 본질에 입각하여 사용된 임상적 현상에 대한 보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홀랜드가 주장한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 등 5개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직업상담의 최종목표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진로를 계획하고 수립하여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데 있다. 직업상담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은 내담자 유형은 우유부단이다. 우유부단함은 다양한 원인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원인별로 직업상담과 프로그램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령, 실패의 공포로 인한 우유부단은 자기효능감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중요한 타인의 영향에 의한 우유부단은 자기탐구를 강화하여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우유부단은 의사결정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유부단에 대한 연구는 진로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존중감, 진로신념[25-28] 등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의 태도[29-31] 등이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에 대한 원인분석은 전무한 상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부단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직업상담에서 돕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상담 장면에서 직업카드분류150을 실시하고, 직업상담 주요 호소에서 의사결정시 우유부단한 내담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갖는 홀랜드 코드의 일관성,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와 주제진술에서의 홀랜드 코드와의 일치성,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의 계측성 등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를 우유부단의 원인 중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내담자의 우유부단함을 검증하고, 돕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우유부단 형 내담자는 홀랜드 코드의 일관성 및 일치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우유부단 형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와 내담자가 진술한 주제의 홀랜드 코드와는 일치하는가?

연구문제3. 우유부단 형 내담자가 갖는 각 코드의 값은 어떤 계측성을 나타내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홀랜드의 이론에서의 일관성과 계측성

직업카드 분류는 홀랜드[32]의 성격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응이론과 같이 개인과 환경의 일치를 지향하는 20세기 사회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질-요인 이론이 발전된 것이다. 개인-환경 일치이론은 개인과 환경 간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즉,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즉, 진로선택은 한 사람의 성격의 표현이고,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성격과 비슷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홀랜드 유형론[1]은 다음의 4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유형인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등으로 분류된다. 이 성격유형은 개인을 묘사한 이론적인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다. 각각의 성격유형은 환경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반응 태도와 기술에 걸친 일련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각각 직업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삶의 목표와 가치, 자신에 대한 신념, 문제해결 방식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직업환경도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 등으로 분류되는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유형은 그 환경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유형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의 환경은 다른 활동, 능력을 필요로 하고 주어지는 보상도 서로 다르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환경도 사회적 상호작용, 구인, 선발 과정 등을 통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넷째, 성격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성격유형과 잘 맞는 환경유형이 무엇인지 알면, 진로선택, 근무기간 및 직업전환, 성취, 직무만족 등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개인-환경 일치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일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대해 홀랜드 이론은 6가지 유형으로 개인 또는 환경을 설명하고, 유형의

유사성으로 얼마나 개인이 그 환경에 잘 맞는지 설명하고 있다.

홀랜드[1]는 이 4가지 가정과 더불어 일관성, 일치성, 차별성, 정체성, 계측성 등의 5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재다능함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인 일관성은 성격유형과 환경모형을 연결지을 때, 어떤 쌍이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일관성이란 성격유형과 환경모형간의 관련정도를 말한다. 일관성 또는 관련성은 어떤 직업을 얼마나 더 선호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R) 성격유형에 가장 유사하고 그 다음으로 탐구적인(I) 성격유형에 가까운 사람은 현실적(R)이면서 사회적인(S)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더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예견하기 쉽다. 와일리와 마군[33]은 211개의 사회형 표본을 사용했으며, 졸업과 내신성적을 예측하기 위해 일관성 수준에 따라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 중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학생들은 일관성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업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더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학생들보다 더 높은 내신성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관성이 전문대 학생의 직업포부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닐과 마군[34], 오닐, 마군, 트레이시[35]는 1~3학년까지, 1학년부턴 졸업 후 3년 되는 시기의 직장생활까지의 탐구형(N=171) 표본을 추적한 결과, 신입생들의 진로적성검사 일관성은 4~7년 이후에야 긍정적인 예측을 도출해냈다. 졸업시기에는 상당히 일관된 직업적성검사 코드를 지닌 탐구형의 76%가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관성코드가 낮은 탐구형의 경우에는 34%만이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간 정도의 일관성을 지닌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일관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3년 혹은 최초 평가 실시 후 7년이 지났을 때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경우는 실제로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54%였으나,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13%만이 탐구형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터치튼과 마군[36]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포부의 일관성은 3년 후의 직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계측성은 성격유형과 환경모형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육각형 모형은 성격유형 또는 환경모형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모형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일관성 및 일치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준다. 이런 점에서 진로이론의 내적인 관련성은 간단한 기하학적 모형에 의해서 규정되고 조직된다. 즉, C와 A의 계측성(0.11)이 가

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I와 C, R과 A(0.16) 등에서 계측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C와 A, I와 C, R과 A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진로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code pairs by correlation coefficient

Rank	Code	CC	Code	CC	Code	CC	Meaning of Correlation Coefficient
1	CE	.68					definitely correlated
2	ES	.54					
3	RI	.46					
4	AS	.42					
5	CS	.38					low correlation
6	RC	.36					
7	AE	.35					
8	IA	.34					no correlation
9	IS	.30	RE	.30			
10	RS	.21					
11	RA	.16	IC	.16	IE	.16	
12	CA	.11					

## 2.2 우유부단

의사결정 단계에서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하나의 선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크라이즈[37]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정사항의 경중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사람이라 하였고, 살로몬[38]은 내담자들을 미결정 상태(undecided)의 내담자들과 우유부단한(indecisive) 내담자들로 구분하였다. 기아나코스와 슈비치[39]는 생물학적 성역할에 동의하는 학부생들 중 대체로 고득점자가 직업 미결정 수준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능하다고 지적인 직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장벽 및 위험 때문이다. 우유부단한 내담자는 직업결정뿐 아니라 심리기능의 여러 국면들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강도, 자존심, 명확한 정체감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내포된 위험부담을 두려워한다.

우유부단은 정보에 근거한 미결정, 불안정한 결정상태, 불편한 결정상태, 한시적 미결정, 무관심적 미결정, 발전적 미결정, 전환적 미결정, 심각한 미결정, 만성적 미결정, 불안한 미결정, 무계획적 회피 등 11가지 상태를 나타낸다[23].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 실패에 대한 공포이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우

우유부단함의 공통적인 이유이다[40]. 내담자 중에는 의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한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내담자가 있으며, 무엇인가를 할 때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기준에 따라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잠재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도 있다.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공포가 강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통해 실패에 대한 확률치를 최소로 줄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둘째,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이다. 내담자가 선택을 못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갖는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조롱이나 관계단절 같은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셋째, 완벽하려는 욕구이다. 융통성 없고 완벽하려는 욕구는 우유부단의 일반적인 이유이다. 넷째, 성급한 결정내리기이다. 또 다른 종류의 어려운 문제는 ‘조급한 의사결정자’라고 불리는 내담자의 경우인데, 이들은 일단 수중에 직업목록을 가지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피해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다섯째, 우유부단함에 대한 강화이다. 내담자들이 우유부단하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다재다능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보이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의 우유부단함은 다재다능함에서 나온다. 즉, 어떤 직업들도 최고의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어떤 직업을 택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들은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의 사람들이 겪는 부정적 반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한 직업을 택했을 때 다른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일곱째, 좋은 직업들의 부재이다. 가장 심각한 우유부단의 이유는 좋은 직업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꼼꼼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선택을 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모두 비중을 두려는 경향[30]이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13년 1~9월중 직업상담 의뢰자 중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 6명을 대상으로 초기면담을 실시하였고, 직업카드분류 및 MMPI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단과정을 거쳐 2회기의 직업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회기 당 상담시간은 30~50분이다. 회기 간 간격은 1주일이다. 초기면담자, 검사실시자, 검사해석자, 직업상담자 등 4명이 진행하였으며, 초기면담, 진단도구 실시 및 해석, 직업상담 운영 등은 직업상담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초기면담시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6명은 15~58세에 걸쳐 있으며, 학생 2명, 회계사 1명, 공무원 1명, 실업자 1명, 퇴직자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Subject of study

Case	Age	Sex	Degree	Job	Decision-making Characteristics
1	15	Male	highschool	student	indecive on career-path
2	36	Male	bachelor	unemployed	indecisive due to prudence
3	17	Male	highschool	student	interested too many different areas
4	38	Female	bachelor	CPA	dependent on older brother's advice
5	31	Male	bachelor	public official	cannot prioritize his interest forus
6	58	Male	bachelor	retired	passive attitude on decisions of life

#### 3.2 도구 및 절차

도구는 직업카드분류150를 사용하였다. 동 도구에서 제시된 홀랜드 3코드의 선정과정을 보면, 홀랜드의 직업분류목록(Job Finder), 미국의 오넷(O\*net), 흥미·적성·가치검사의 매뉴얼, 한국고용정보원의 노우넷(Know.work.go.kr) 등에서 동일한 코드값을 가진 직업에 대한 코드를 확정하고 코드값이 상이하면, 직업분류목록(Job Finder), 미국의 오넷(O\*net) 등을 중심으로 코드값을 부여하였다[41].

『직업카드분류150』의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출발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직업카드 활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내담자가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음 단계는 내담자에게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등의 뜻말 아래에 직업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를 시작할 때 직업분류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거나 선택할 직업만을 “좋아

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켰다. 직업카드 1차 분류를 끝내고 워크시트1에 “좋아함”, “싫어함”, “모르겠음” 카드의 수를 확인하여 쓰도록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르겠음”으로 분류한 카드를 재분류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주제 찾기 단계에서 내담자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 막연히 좋다 또는 싫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시켜 워크시트2에 작성토록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좋아하는 군의 카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 12가지를 선택하고, 12가지 직업을 가장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 뒤에 워크시트에 순위별 직명과 3코드를 기재하게 하였다. 다음에는 문자의 수를 계산하면서, 내담자에게 맞는 ‘홀랜드 코드 요약형 찾기’ 작업용지 위에 그 코드들을 써 넣었다. 기재가 끝났다면 카드 뒷면에 제시된 홀랜드 부호를 확인하여 워크시트2의 홀랜드 코드 요약형 찾기 및 계산에 기재토록 하였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 코드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였다. 이때 상담자는 계산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산이 서툰 내담자를 도와주었다. 계산법은 제1 코드에는 3점, 제2코드에는 2점, 제3코드에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계산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서 3번째 점수의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나,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는 코드가 있다면 이를 나타내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각 코드의 가장 높은 점수는 36점이다.

계산된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문자와 수치가 같은 네 번째 문자까지 함께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총계’열이 E=20, A=19, S=17, I=17이라면 요약형 코드는 EAS/I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수가 동점인 경우라면 세 코드만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E=20, A=20, S=17, I=10이라면 요약형 코드는 E/AS이다.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는 계산한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즉, E=20, A=19, S=17의 순이라면 EAS가 코드가 된다.

### 3.3 분석방법

내담자가 제시한 워크시트1과 2를 토대로 내담자 3코드를 확인한 다음 각 코드가 갖는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내담자의 3코드가 서로 이웃변에 위치하여야 높기 때문에 각 코드의 이웃변을 확인하고, 3코드중 1코드가 이웃변이 아닐 때 일관성이 낮다고 보았다. 주제진술을 분석하여 각 진술문을 RIASEC코드별 변환하여 각 코드별 주제를 제시한 회수를 분석하였다.

내담자의 계측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각형 모형을 도식화하였으며, 모형의 최고점은 36점이며, 중앙을 0점으로 배치하였다. 36점은 6각형을 그려 길이, 각도, 위치 등

을 분석하였다. 각 계측성에 대한 값은 내담자의 3코드가 갖는 값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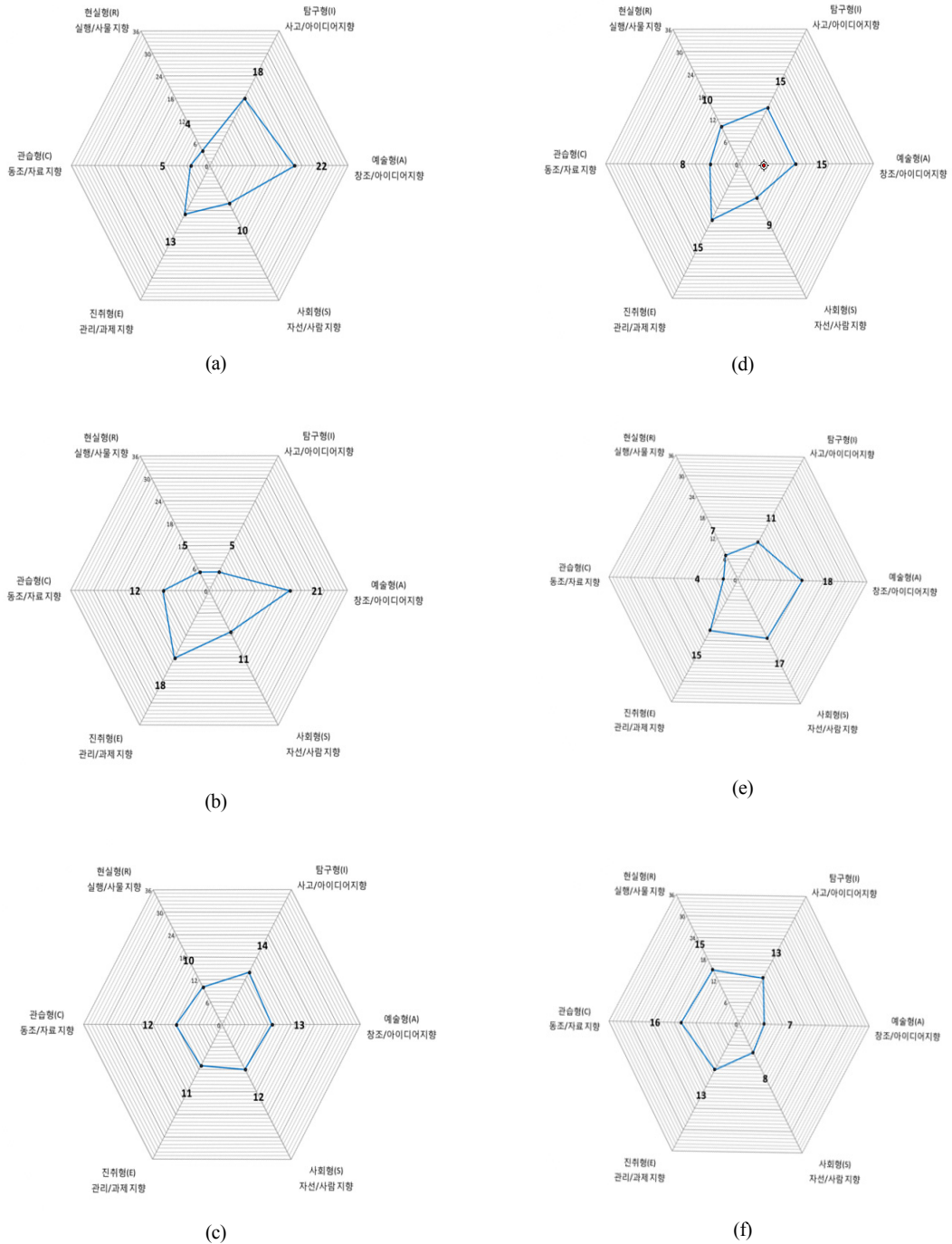
## 4. 연구결과

홀랜드는 코드가 서로 이웃하는 것을 일관성으로 개념화하였다. 6명의 이 연구대상자중 일관성 분석에서 6명은 <표 3>에서와 같이 모두 1개 코드가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중 3코드를 2개 이상 보유한 내담자는 3명에 이르고 있고, 1개 코드에서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3코드를 3개이상 보유한 내담자는 3코드에서 R이 일관성을 낮게 하였다. 일관성이 낮은 이유는 직업에 대한 심상이 실제 직무와 괴리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우선순위 직업선택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신의 진로 탐색에 진지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그 중 본 연구 내담자들은 우선순위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우선순위 직업선택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이들이 작성한 주제를 분석한 결과 좋아하는 이유는 1~10개, 싫어하는 이유는 1~15개 등으로 분포되었다. 먼저 내담자가 제시한 진술문의 주제분석 결과 내담자의 첫째 코드와의 일치성 1명, 둘째코드에서 일치성 2명, 셋째코드와의 일치성 4명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에 따라 자신의 심상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정확히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막연하거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하는 언어 또한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큰데, 심상을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내담자의 생애진로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추상적인 언어를 장황히 나열하여 명료성을 갖기 힘든 때도 있다. 직업에 대해 진지한 탐색과 관심이 없는 경우, 전공의 특성상 섬세한 자기 사유가 미흡한 경우, 성별 특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표현이 간단함, 주제진술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직업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직관적인 심상이 실제 직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된 내용이 피상적임 등으로 분석된다.

주제 진술과 우선순위 직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나 실제 직무에 대한 왜곡된 생각, 좋아하는 카드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대안 좁히기를 실시할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은



[Fig. 1] Six cases of Holland's Hexagonal model  
 (a)case 1 (b)case 2 (c)case3 (d)case 4 (e)case 5 (f)case 6

경우, 현재 전공에 대한 실망감이나 환멸, 직업전환에 대한 욕구의 반영, 특정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 등이다.

또한, 사례1은 I와 A, 사례2는 E와 A, 사례3은 E와 I, S와 R, C와 A, 사례4는 I와 E, S와 R, 사례5는 I와 E, E와 A, 사례6은 I와 E, R과 C 등에서 유사한 계측성을 나타냈다. 즉, 마주보는 변과 유사한 값의 계측성을 보였다.

[Table 3] Number of Top 12 code

Case	Number of selected 'Like'	Code	Consistency of code
1	R(4) I(18) <b>A(22)</b> S(10) E(13) C(5)	AIE	low consistency of E
2	R(5) I(5) A(21) S(11) E(18) <b>C(36)</b>	CAE	low consistency of A
3	R(10) <b>I(14)</b> A(13) S(12) E(11) C(12)	IAS/C	high consistency if IAS, no consistency if IAC
4	R(10) <b>I(15)</b> <b>A(15)</b> <b>S(9)</b> E(15) C(8)	I/A/ ERS	low consistency of R (IRS, ARS, ERS)
5	R(7) I(11) <b>A(18)</b> S(17) E(15) C(4)	ASE	high consistency if ASI, low consistency of I if AEI
6	R(15) I(13) A(7) S(8) E(13) <b>C(16)</b>	CRE/I	high consistency if RCE, low consistency of I (if RCI)

계측성을 보기 위하여 6각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6명 모두 거의 동일한 면적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각 변이 발달되었으며, 특히 사례3은 모든 변의 점수가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 있어 완벽한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즉, 11~14범위 내에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사례4와 사례6의 경우도 약간 치우쳐 있지만,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각 변이 발달되었다. 사례3(IAS/C), 사례4(I/A/ERS), 사례6(CRE/I) 모두 3코드를 2~3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내담자는 우유부단의 특성을 보인다.

[Table 4] Subject Analysis

Case	Code	Reason for 'like'						Reason for 'dislike'						
		R	I	A	S	E	C	R	I	A	S	E	C	
1	AIE			<b>2</b>	<b>2</b>	1		<b>2</b>	1					<b>3</b>
2	CAE				1		<b>2</b>	<b>1</b>	<b>1</b>	<b>1</b>				
3	IAS/C	4	8	8	5	<b>11</b>	<b>15</b>		3	1	1			9
4	I/A/ERS	2	3	2	3	<b>4</b>	<b>4</b>	<b>9</b>		1				1
5	ASE		7	5	2	<b>10</b>	<b>7</b>	4	6	2				<b>7</b>
6	CRE/I	2	4	3	<b>6</b>	<b>6</b>	3	<b>4</b>						1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을 호소한 내담자들의 홀랜드 3코드의 일관성 및 계측성을 분석하여 우유부단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6명의 사례분석 대상자 모두 홀랜드 3코드는 일관성이 낮으며, 주제진술에서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3코드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6각형에서는 각 코드가 발달된 다재다능한 형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유부단한 내담자는 홀랜드 3코드 중 1코드가 상 일관성이 낮고 주제진술과 일치성이 낮았다. 각 코드의 일관성이 낮게 나온 해당 코드가 주제진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갖는 3코드의 일관성, 주제진술과 3코드와의 일관성 등은 내담자가 우유부단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다재다능한 내담자는 진로 태도나 진로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6각형 모형 중에 각 변의 길이가 전부 발달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전형적인 다재다능한 면을 보인다. 사례연구 중에 내담자 1인에게 부여되는 3코드가 동시에 동일 점수를 나타내어 3코드를 2개 이상 갖는 사례가 3명이 있었다. 이는 각 코드마다 흥미구조를 높게 보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홀랜드 3코드의 쌍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내담자를 우유부단함으로 진단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재다능한 내담자는 완벽한 선택을 위하여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다재다능한 6각형 모형을 갖고 있는 사례에서 6각형 모형에 나타난 계측성을 보면, 6개의 코드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길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내담자는 다재다능형으로서 동시에 우유부단함을 가져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홀랜드의 일관성 및 계측성은 내담자의 다재다



능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의 우유부단함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주제진술과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와의 일치성도 우유부단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측정도구를 통해 일관성과 계측성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여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5.2 제언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재다능을 나타내는 내담자는 사실, 21세기에서 요구하는 복합화와 융합화 된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인재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는데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재다능한 내담자에 적합한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홀랜드 코드의 일관성과 계측성이 낮게 나온 내담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돕는 과정이 직업상담 장면에서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우유부단의 원인별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청소년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영역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검사를 활용하는 교육이나 상담장면에서는 홀랜드 이론에 기반을 둔 검사결과에 국한 하지 않고, 6각형 모형에서의 일관성과 계측성을 확인하여 우유부단의 가능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넷째, 홀랜드 모형 내 마주보는 코드에서 유사한 코드 값의 계측성을 보였다면, 우유부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직업상담 시에 우유부단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 연구의 한계점은 홀랜드가 제시한 계측성에서 상관계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 코드가 갖는 진점수를 제시하여 6각형 모형의 길이를 분석한 것이다. 많은 사례를 통하여 각 코드가 발달한 다재다능한 사례별 각 변의 상관계수로서의 계측성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2nd ed.).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 [2] Goldman L. Qualitative Assess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18, pp. 205-213, 1990
- [3] Goldman L. Qualitative Assessment: An Approach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pp. 616-621, 1992.  
DOI: <http://dx.doi.org/10.1177/0011000090182003>
- [4] Goldman L. (1995). Comment on Croteau and Slaney(1994),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 385-386.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92.tb01671.x>
- [5] Slaney R. B., "Expressed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A Comparison of Instrum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6), pp. 520-529, 1995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5.6.520>
- [6] Croteau J. M., & Slaney R. B. Two methods of exploring interests: A comparison of outcom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pp. 252-261, 1994.  
DOI: <http://dx.doi.org/10.1002/j.2161-0045.1994.tb00942.x>
- [7] Dolliver, R. H. (1969).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versus expressed vocational interest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2, pp. 95-107.  
DOI: <http://dx.doi.org/10.1037/h0027850>
- [8] J. W. Joo, "The effect of career guidance program using vocational card sort activity on primary school student's career awareness maturity", Hannam University, MA. Thesis, 2011.
- [9] E. H. Kim, "Intervention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tilizing job cards on career understanding ability and career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09.
- [10] J. S. Kang, "The Effect of Career Guidance Program Using Vocational Cards on Prim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areer efficacy", Ulsan University, MA. Thesis, 2009.
- [11] J. Y. Park, "Effect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Using Occupation Card on the Sense of Identity Related to the Career Path of the High School Seniors", Sungkyunkwan University, MA. Thesis, 2007.
- [12] H. J. Bae, "The Effect of Career Guidance Program Using Vocational Cards", Ajou University, MA. Thesis, 2006.
- [13] B. H. Kim, Y. M. Cho, "Development of Career Guidan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Vocational Cards and It's Appli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8(1), pp. 228-245, 2005.



- [14] M. W. Choi, "Exploration of vocational interests for highschool students with vocational car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02.
- [15] Y. J. Choi, "The Study on Development of Vocational Cards for Career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2.
- [16] M. H. Song, "Development of occupational cards for former prostitutes to explore career", Sookmyung University, MA. Thesis, 2011.
- [17] Y. W. Lee, "Development of Vocational Card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ctivity". Konkuk University, MA. Thesis, 2010.
- [18] J. R. Kang, H. J. Lee, "The Development of the Vocational Card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Validation",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6(1), pp. 1-17, 2005.
- [19] S. Y. Park,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ard Sort for Women"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A. Thesis, 2003.
- [20] Y. J. Kim, "Development of a Manual about Occupational Card Sort for High School Student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A. Thesis, 2003.
- [21] B. S. Kim, S. J. Bak, B. I. Kim, "Analysis on Accord Level of Youth's Interest, Aptitude, Value through Occupational Card Sor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4), pp. 1-21, 2007.
- [22] K. R. Noh, Y. J. Chon, H. J. Seo. "Basic Research for improving vocational cards".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7
- [23] B. S. Kim, S. J. Kim, B. I. Ki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ational Card Sort result and Holland Cod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2), pp. 63-78, 2009.
- [24] B. S. Kim, S. J. Kim, M. J. Kim, "The Analysis of the job preference of the college students throught the Occupational Card Sor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1), pp. 25-49, 2011.
- [25] S. J. Kim, "Clusters by Perfectionism, Indecisiveness and Their Difference in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 Thesis, 2013.
- [26] H. J. Kim, "The Influence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indecisiveness", Myungji University, MA. Thesis, 2010.
- [27] H. S. Kim, S. J. Lee, H. J. Lee, "An Personal Characteristics, Career Indecision, and Job Search Behaviors in Senior student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Research, 2008.
- [28] H. J. Lee, K .S. Kim,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Career Indecision and Job Search Behavio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Senior Students.", Korean Academic and Industrial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21(1), pp. 51-71, 2008.
- [29] A. R. Lee, "Aspect on decision-making of obsessive college students, Catholic University, MA. Thesis, 2007.
- [30] Y. J. Jang, S. H. Ch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fectionist indecisiveness and dependent indecisiveness", The Journal of Student Life Research, 11(1), pp. 155-175, 2006.
- [31] J. C. Lee, M. J. Park, S. R. Kim, "Effects of Optimism and Indecisiveness to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pp. 633-650. 2005.
- [32]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careers (2n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5.
- [33] Wiley, M. O., & Magoon, T. M. Holland high-point social types: Is consistency related to persiste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pp. 14-21, 1982.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2\)90059-8](http://dx.doi.org/10.1016/0001-8791(82)90059-8)
- [34] O'Neil, J. M., Magoon, T.M., The predictive power of Holland's investigative personality type and consistency levels using the Self-Directed 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pp. 39-46, 1977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40-9](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40-9)
- [35] O'Neil, J. M., Magoon, T. M., & Tracey, T. J. Status of Holland's investigative personality types and their consistency levels seven years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pp530-535, 1978.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5.6.530>
- [36] Touchton, J. G., & Magoon, T. M. Occupational daydream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pla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pp.156-166, 1977.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52-5](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52-5)

[37] Crites, J. O.,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69.

[38] Salomone, P. R., Differen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pp. 496-500, 1982

DOI: <http://dx.doi.org/10.1002/j.2164-4918.1982.tb00703.x>

[39] Gianakos, I., & Subick, L.M.,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sex-role orientation to vocational un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pp. 42-51. 1986.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6\)90028-X](http://dx.doi.org/10.1016/0001-8791(86)90028-X)

[40] Sorotzkin, B.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22(3), pp.564-571.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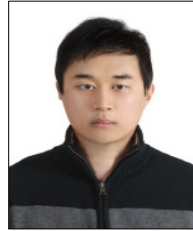
DOI: <http://dx.doi.org/10.1037/h0085541>

[41] B. S. Kim, Job cards for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category guidelines (2nd. Ed), Korea Vocational Counseling Association, 2011.

---

## 이 준 일(Joon-II Lee)

[정회원]



- 2009년 12월 : University of Maine 회계학 학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석사과정 재학
- 2011년 9월 ~ 현재 : 한국직업상담협회 연구원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

---

## 김 병 속(Byung-Suk Kim)

[정회원]



- 2000년 3월 ~ 2013년 3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주임 교수
- 2008년 1월 ~ 현재 : 한국진로교육학회 고문
- 2007년 3월 ~ 현재 : 김병속 Job & Mental Clinic 원장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